

서울굿 무구의 의례적 기능 및 상징성 고찰

신다혜 (중앙대학교)

1. 서론

무속은 한국의 고유한 토착 종교로 우리 문화 속에 깊게 자리 잡은 민간신앙이다. 무속이라는 종교의 사제는 ‘무당’이라고 칭한다. 무당은 다양한 ‘무구’를 사용하여 의례를 행하며, 신도들의 앞날을 예언하는 점사를 보기도 한다. ‘무구’란 무속의례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도구로써 의례를 하는 데에 필수적인 도구이면서 무속이라는 종교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물질이다¹⁾. 서울굿은 서울 지역에서 행해지는 무속의례를 의미하지만, 인천과 경기 지역의 굿도 서울굿과 유사한 점이 있어 경기 남부의 세습무 전승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굿으로 본다.²⁾ 서울굿은 주로 강신무에 의해 의례가 진행되며 세습무 지역과 비교했을 때 무당이 소지하는 무구가 월등히 많지만 황해도나 평안도에 비해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³⁾ 무구의 범위는 의례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들이며 종류는 창검류, 부채, 방울을 비롯하여 지화(紙花), 무신도, 명도, 배가르기친, 오방신장기, 무복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서울굿에서 사용되는 무구 중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무구인 창검류, 부채, 방울 세 개의 무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이 중에서도 부채와 방울은 “부채, 방울 없는 무당도 있나?”라는 말이 있을 만큼 무당에게는 필수적인 영물(靈物)⁴⁾이다. 무당의 상징이라고 여길 수 있는 위의 무구들이 의례에서 어떠한 기능과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고찰해보도록 한다. 또 이러한 무구들이 무당에게로 유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산업화와 같은 사회적인 사건으로 인한 유입 과정의 변화에 따른 무속의 종교적 상징성의 약화에 대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관련 연구논문과 함께 필자가 경기도 화성의 어느 굿당에서 진적맞이 굿을 연행한 무속인 김씨와 무속인 장씨의 구술을 토대로 서울굿의 무구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한다.

2. 서울굿 무구

2.1. 서울굿 무구의 종류

창검류 무구는 창과 검류로 나누어진다. 창은 ‘삼지창’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며, 검류는 대신칼, 군웅칼, 장군칼, 신장칼, 월도 등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다. 검창류의 사용 목적은 신령의 신체로 삼아 신당에 모실 때, 잡귀나 잡신을 물러가게 할 때, 신의 영험함을 과시하고자 할 때, 신의 위엄을 나타낼 때, 신에게 음식 제물을 바칠 때 등이다.⁵⁾ 삼지창은 강신무들이 사용하는 무구 중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무구이며 월도(언월도)나 청룡도와 함께 사용한다. 굿에서 군웅거리, 대감거리, 장군거리 등에서 장군신, 군웅신, 대감신 등을 불러들일 때 삼지창을 들고 춤을 추어 신을 기쁘게 하거나 그 위엄을 나타낸다.⁶⁾

1) 최진아, 「무구(巫具)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무속학』, no.10, 2005.

2) 최진아, 「서울굿의 무구 연구」, 『한국무속학』, no.12, 2006.

3) 최진아, 위의 논문.

4) 영물(靈物)은 성스러운 신앙적인 신령(神靈)의 물건이며 영감이 깃들여 있는 물건이다. 이는 귀명(鬼明), 신명(神明), 귀물(鬼物), 신물(神物)이라고 한다. 양종승, 『샤먼 영물』, 금성당·샤머니즘박물관, 2019, p.228.

5) 양종승, 『샤먼 영물』, 금성당·샤머니즘박물관, 2019, p.230.

6) 양종승, 위의 책, p.231.

또한 삼지창은 무당이 굿을 하면서 신에게 음식을 바치기 위해 신에게 바치는 전물을 쫓아 세우기를 하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박수무당 무속인 김씨는 ‘전물 세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삼지창에 제물을 쫓아 세웠을 때에 제물이 넘어지지 않으면, 신령이 제물을 잘 받아 잘 놀고 감과 함께 정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며, 세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정성을 들여 다시 세우기에 도전합니다. 이 과정은 전물을 쫓은 창이 쌀이 가득 찬 그릇 위에 올라가 서 있기를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신이 잘 놀고 가셨는지를 판단하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검류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서울굿 무당이 폭넓게 사용하는 검류는 월도와 대신칼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검류는 무당이 모시는 신에 따라 달라진다.⁷⁾ 본고에서는 무당들이 보편적으로 다루는 검류인 ‘대신칼’만을 다루어보도록 한다. 대신칼은 서울과 제주 지역에서 신칼, 영남 지역에서 놀이칼, 황해도 지역에서 대신칼로 명칭 한다. 사용 용도에 따라 부정칼로 불리기도 하며, 필자가 참석하였던 진적맞이 굿에서는 불사거리에서 신들을 모시고 놀리기 전에 부정을 물리치는 용도로 사용하여 ‘부정칼’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대신칼은 길고 얇은 형태이며, 칼자루 부분이 꼬아져 있는 모습이다. 이는 부정한 것을 말아 몰아낸다는 의미이다. 칼의 끝에 천 혹은 한지를 끼워 놓는데 이 또한 바람을 일으켜 부정한 기운을 몰아내고 이로운 기운을 불러오기 위함이다.⁸⁾ 이를 ‘대신밥’이라 하며 그 수는 반드시 홀수로 단다.⁹⁾

이어 무당의 대표적인 무구인 ‘방울’은 신과 교신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구이다. 신을 모시고자 할 때와 다시 보내고자 할 때 방울을 흔들며 신과의 교신을 시도한다. 방울의 종류는 ‘칠성방울’, ‘열두대신방울’, ‘아흔아홉상쇠방울’ 등이 있다. 칠성방울의 경우 ‘칠쇠방울’, ‘칠새방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Y자로 된 막대의 끝에 각각 3개, 4개의 방울이 달려있다. 무속인 김씨는 “칠성방울을 살펴보면 방울에 ‘수(壽)’라는 글자와 ‘복(福)’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굿을 수행하며 칠성방울을 흔드는 것은 여기 모인 신도들에게 복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입니다.”라고 설명하였다. 칠성방울과 함께 많이 쓰이는 방울은 열두대신방울로, 十자로 된 막대에 각 3개씩의 방울이 달려있다. 칠성방울의 경우 칠성거리에서 칠성신을 모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열두대신방울과 함께 혼용하여 전 거리에서 사용한다.

부채의 경우 ‘선대부채’라는 이칭으로도 불리며, 이는 부채살의 수가 50개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살의 수가 현저히 줄어 20개, 30개의 살 정도로 제작된다. 무당부채를 50개의 살로 만드는 것은 신령을 위해 쓰이는 ‘최고의 부채’여야 한다는 믿음에서 왔다. 즉, 선 살 무당부채는 최고의 큰 것과 최상의 것을 뜻하며 이는 신령의 높은 위엄과 최고의 위치를 암시하는 뜻이 담겨 있다.¹⁰⁾ 부채는 그 모양에 따라 접부채, 방구부채, 둥굴부채로 분류해 볼 수 있으며 접부채는 말 그대로 접어 사용하는 부채, 방구부채는 둥근 모양의 부채이다. 둥굴부채의 경우 두 부채의 혼합형태로 둥근 모양의 접어 쓰는 부채이다. 굿거리에서 가장 많이

7) 최진아, 앞의 논문(2006), p.187.

8) 양종승, 앞의 책, p.230.

9) 이명숙, 「서울지역 무구의 신화·의례적 기능 연구 -부채·방울·대신칼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no.8, 2004, p.92.

10) 양종승, 위의 책, P.237.

쓰이는 부채의 종류는 삼불제석부채, 칠성부채, 만성수부채이며 모시고자 하는 신에 따라 애기·동자씨를 모실 때에는 애기·동자씨 부채를 사용하며, 선녀를 모실 때에는 선녀부채를 사용한다.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을 일으켜 복을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굿거리를 진행할 때 무당은 신도에게 부채로 바람을 일으켜 복을 건네주는 시늉을 한다. 이 과정에서 신도는 부채 위에 준비한 별비를 얹어 재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한다. 또한 굿을 수행하는 중 무당이 신도에게 접촉할 일이 생기면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부채를 이용해 접촉한다. 이는 부채가 신령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며 무당 개인이 아닌 신령이 신도와 접촉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2.2. 무당으로서의 입문 도구, 부채와 방울

신의 제자로서의 무당을 상징하는 대표적 무구는 부채와 방울이다. 이 부채와 방울은 무당이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된 입문 동기가 되기도 한다. 필자가 참석하였던 굿의 무속인 장씨는 입무하는 과정에서 꿈을 꿀 때 기명을 받았다고 한다.

“제가 어릴 때 시골 문경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거기가 위에서 보면 꼭 웅덩이처럼 생겼어요. 제가 꼭 꿈에서 물속을 걸어 다니는 꿈이나 물 위를 걸어 다니는 꿈을 꾸거든요. 그날도 꿈에서 어릴 때 살던 문경 시골 마을이 저수지로 나온 거예요. 제가 거길 막 걸어 다니는데 갑자기 그 저수지에 흙이 매꿔지는 거예요. 꼭 누가 도술 부리는 것처럼 그 위에 집 한 채가 지어져요.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중간에 앉아있는데 하늘이 열려요. 그 하늘에서 부채랑 방울이랑 스님 옷이랑 목탁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게 바를 정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바른길로 걸어가는 무속인이 되라는 뜻인 거죠. 그 뜻으로 정복을 내려준 거예요.”

3. 무구의 유입과정

입무 과정에서 무당은 무업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무구를 마련한다. 과거에는 ‘걸립’이라고 하여 영검함을 실천하기 위해 마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점을 쳐주고 쇠나 곡식을 얻었다. 걸립한 쇠로 무구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쇠걸립’이라 한다.¹¹⁾ 걸립을 할 때에는 그 내용물에 따라 재복과 식복 등의 다양한 의미가 부여되며 걸립을 받은 무당은 걸립한 내용물의 의미에 맞게 복을 빌어주어야 한다. 또는 신력이 다하여 더 이상 무업을 잇지 못하거나 죽는 경우 사용하던 무구를 땅에 묻어두는데, 이를 이제 막 신을 받기 시작하는 입무자가 찾아내어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을 ‘구애비 떴다’라고 한다.¹²⁾ 한편 신도를 통해 기증받거나 신어머니에게서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지화(紙花)와 같은 일회성 무구의 경우 직접 제작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무구를 전문적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만물상을 통해 필요한 무구들을 주문제작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만물상을 통해 구입한 무구는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례를 거친 후 사용한다. 무속인 김씨의 말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무구에 신성성을 부여한다.

“주로 구입을 하거나 신어머니에게서 선물을 받는 것은 부채와 방울, 그리고 무복입니다. 구입을 할 때에는 아무 때에나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모시는 모든 신을 초대하여 놀리는

11) 양종승, 위의 책, P.228.

12) 양종승, 위의 책, P.228.

진적맞이 굿을 앞두고 무구들을 구입합니다. 구입한 후에는 향을 피우거나 금줄을 쳐 부정 을 가지게 하여 일종의 정화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 진적굿 당일에 처음으로 본인의 신령을 받을 때 사용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무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 구의 경우 신어머니의 무구와 겹쳐 들어 신을 모셔 본인이 이 무구를 사용할 것임을 신령님 들께 고합니다. 무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어머니의 무복을 안에, 본인의 무복을 밖에 입 고 거리를 진행합니다. 진적맞이 굿은 신령님들께 인사하고 감사를 올리는 중요한 굿이기 때문에 사용할 꽃들과 음식도 전부 새 것으로 깨끗하게 준비합니다.”

4. 무속의 상업화로 인한 종교성 상징성의 약화

‘걸립’ 혹은 ‘구애비’를 통하여 일정한 신앙적 행위를 통해 무구를 마련했던 과거와는 달 리, 현재는 만물상에서 무구를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과거에 무구를 구매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걸립을 통해 얻은 쇠를 가지고 가 주문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제 작 의뢰를 받은 장인은 고사를 지낸 이후 제작을 시작하였다. 고사를 지내지 않는 경우 의뢰자가 간단한 의식을 거행하거나 제작과정을 지켜보는 등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¹³⁾ 이와 같은 무구를 얻는 과정에서는 일정한 신앙 행위를 통한 종교적 상징성의 의미가 강해졌으며 이에 따른 신성성이 무구에 자연스럽게 부여되었다. 하지만 산업화와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사건들의 영향으로 무당 사회의 전승체제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무구를 제작하고 얻어 사용하는 자급자족형 무당은 점점 사라지고 업체에서 대 량생산한 무구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¹⁴⁾ 만물상의 활성화는 곧 무속의 상업화를 의미하며, 이는 무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종교적인 상징성이 약화 되어 감을 말한다.¹⁵⁾ 하지만 위의 무속인 김씨의 경우와 같이 구매한 무구에 일정한 의식을 거행하여 신성성을 부여한 후에 무구를 사용하는 것과, 여전히 무속인이 의례 전 손수 제작 하고 있는 무구가 존재한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무업에 사용하는 무구의 신성성을 보존하 기 위한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결론

서울굿은 강신무들의 활동 지역으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무구는 창검류와 부채, 방울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 무구들의 기능과 의례의 상징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자 가 참석했던 경기도 화성의 굿당에서 진적맞이 굿을 진행한 무속인 김씨와 무속인 장씨의 구술을 토대로 하였다. 무구가 과거 주문제작 혹은 걸립과 구애비와 같은 신앙적 행위를 받 드시 거쳐 무속인에게로 유입되었던 것과는 달리 오늘날에는 만물상의 활성화와 공장형 물 품의 대량생산의 영향으로 제작과정에서의 신앙적인 행위가 사라져 무속에 대한 종교적인 상징성이 약화된 현상을 고찰해보았다. 그러나 무속인 김씨의 구술과 같이 구매한 무구에 신성성을 부여하기 위한 과정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볼 때, 무구의 신성성 보존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최진아, 「무속의 전승체제 약화가 무구제작에 미친 영향」, 『한국무속학』, no.29, 2014.

14) 최진아, 위의 논문.

15) 양종승, 앞의 책, p.229.